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의 취업준비 노력과 성과

안소윤¹ · 안성자² · 권해연³

¹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²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 ³김해대학교 물리치료과

Effects of Pre-Employment Effort of the Physical Therapy Graduates

So Youn Ahn¹ · SeongJa An² · HaeYeon Kwon³

¹Dept. of Physical therapy, CatholicUniversity of Busan

²Dept. of Physical therapy, Masan University

³Dept. of Physical therapy, Gimhae University

ABSTRACT

Background : This study aims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of college students' life, behaviors to prepare for employment, and employment performance, thereby providing basic materials to create efficient measures for college students' employment strategies.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7 graduates from th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employed in medical and health institutions in Gyeongsangnam-do and Busan. A questionnaire devised by Yu Yeon-wha and Lim Gyeong-ae(2012, 2011) was revised and complemented into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composed of 29 question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8.00 program. **Results** : 1) The biggest reason for the respondents' selecting physical therapy as a major was bright prospect for employment, and the largest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tarted to prepare for employment in the second semester of junior year. 2)Regarding behaviors to prepare for employment, those who largely provided information on employment were the respondents' seniors and friends. 62.3% of the respondents owned certificates and diplomas. 59.9% took part in programs related to employment in order to prepare for employment. Their weakest area was English and what they wanted to know most was annual salaries provided by companies. They put self-development and growth potential before everything as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iority when getting a job. 3)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 in their interviews for employment was the motive for application.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employment at their current institution was their good personality and manner. 4)As for employment performance, they were unsatisfied with their current average annual salary. **Conclusion** : School should provide consciousness education and employment coaching so that students can early prepare for employment with an active attitude. In particular,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many students can gain easy access to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in diverse areas should be provided and student coaching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Key words : Employment strategies, Physical therapy department graduates

교신저자 : 안성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용담리 100) 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전화 : 055-230-1347,

E-mail : asjapt7@hanmail.net

I. 서론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진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과도한 입시경쟁을 통해 대학입학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졸업이 다가 오면서 취업진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진로에 대한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와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고학력 실업률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생의 취업은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1997년 12월 IMF의 국제금융지원과 더불어 경제의 급격한 위축 및 구조조정은 한국사회의 과잉교육과 고학력 실업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대학 졸업자들이 구직시 채용 정체가 계속되어 왔다. 또한 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은 여전하거나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상희, 2004). 2012년 청년층(15~29세) 연실업률이 7.5%, 2013년은 8.0%, 2014년 1월 8.7%로 지속적인 증가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통계청, 2014).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청년층 노동인력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저하, 일자리 감소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들의 노력은 과도한 취업경쟁으로 이어진다(김미경, 2008).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문제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늘어나게 되며, 가장 고민되는 영역으로 진로, 취업의 영역을 꼽게 된다. 그러나 졸업생의 취업문제는 대학에서의 직업지도 차원에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관계된 진로지도나 진로 상담은 매우 빈약한 현실이다(김경미 등, 2009). 지금까지 물리치료(학)과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알려져 왔고 실제로 대학 수험생들이 취업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나라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취업이 어려워지고 배출 인원이 많아져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취업전략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취업준비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혹

은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개인의 자질을 갖추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취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어능력 향상과 각종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이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있으나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취업 및 진로의 선택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해석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 및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이혜숙과 송선옥, 2011). 그러므로 대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적절한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성숙 정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올바른 진로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전략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물리치료사는 대학을 졸업하여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 지각 등 다시 말해서 전문인으로서의 직관이 필요하다(윤은자 등, 2005). 대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질을 갖추어 취업 후에도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 전공 선택 동기와 취업진로와 취업성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김봉환 1997; 김재원, 2003; 방경숙 등, 2009; 이제경, 1997; 채창균 등, 2005; 황선영, 2010)가 있었지만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및 경남지역의 의료보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대학 재학 시 취업준비를 위해 한 행동과 취업성공률 파악하여 취업전략에 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현재 부산경남지역 의료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단순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여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 218부(87.2%)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사 내용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07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연구자는 물리치료과 졸업생들의 취업인식과 준비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업에 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생활(대학시절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5문항,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 4문항), 취업준비와 취업행동(취업의식과 준비상황과 관련된 6문항, 전공과 관련된 취업계획 4문항, 면접 및 입사와 관련된 7문항), 취업성과와 관련된 3문항으로 3가지 분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세부 문항은 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유연화와 임경애(2011, 2012)가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문항 중에서 물리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 작성하였다. 또한 작성된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최종 완성하였다. 연구자는 조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는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답변하게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는 약 1개월에 걸쳐서 부산과 경남에서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PASW Statistics 18.0 for windows 사용하였고, 조사 결과의 유의수준 α 는 0.05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기관별 대학생활, 취업준비와 취업행동(취업의식과 준비상황, 전공과 관련된 취업계획, 면접 및 입사), 취업성과에 대한 각 문항의 응답분포도의 통계적 관련성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8.75세, 평균 경력은 4년 11개월이었고, 성별은 남자 51.7%, 여자 48.3%를 보였고 3년제 졸업자가 34.3%, 4년제 졸업자가 65.7%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시 평균 학점은 '3.5~4.0 미만'이 50.7%였다(표 1).

2. 대학생활

1) 대학 재학 시 특성

학 입학 시 물리치료 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취업전망이 밝아서' 33.3%, 그다음은 '주위 사람들의 권유' 30.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종합병원에서는 '주위사람들의 권유'가 가장 높았으며, '적성과 흥미에 맞음' 53명(25.6%)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 전공 과목의 공부가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다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가 46.4%로 가장 많았지만 '그렇다' 이상이 48.3%로 적성과 능력에 맞다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앞으로 진료와 직업 선택 시 물리치료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선택하겠는가에 대한 응답 중에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상이 49.3%, '보통이다' 36.2%로 나타 물리치료와 관련된 진료와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대학(교)의 가장 바람직한 임상실습 기간은 전체적으로 '21주 이상' 2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주~8주' 22.7%, '9~12주' 19.8% 순으로 나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구대상자					전체 (n=207)
	근무기관	대학·종합병원 (n=74)	준종합병원 (n=37)	재활전문병원 (n=47)	기타 (의원, 보건소, 센터, 복지관) (n=29)	
나이(years)		29.80±7.49	29.08±6.10	26.66±4.38	30.52±5.90	28.75±6.29
경력(months)		69.34±81.96	58.56±56.31	36.72±44.68	82.03±63.05	58.63±66.25
성별	남자	39(18.8)	10(4.8)	46(22.2)	12(5.8)	107(51.7)
	여자	35(16.9)	27(13.0)	21(10.1)	17(8.2)	100(48.3)
학제	3년	18(8.7)	13(6.3)	25(12.1)	15(7.2)	71(34.3)
	4년	56(27.1)	24(11.6)	42(20.3)	14(6.8)	136(65.7)
학점	3.0 미만	2(1.0)	0(0.0)	1(0.5)	1(0.5)	4(1.9)
	3.0~3.5 미만	8(3.9)	6(2.9)	21(10.1)	9(4.3)	44(21.3)
	3.5~4.0 미만	47(22.7)	17(8.2)	31(15.0)	10(4.8)	105(50.7)
	4.0 이상	17(8.2)	14(6.8)	14(6.8)	9(4.3)	54(26.1)

n(%) or M±SD

났으며,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대학 졸업 후 필요한 인턴십 기간은 전체적으로 38.2%가 4~8주 정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26.6%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p > .05$)(표 2).

2)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

학과 교수의 학생진로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필요하다’ 40.6%, ‘매우 필요하다’ 31.9%로 나타나 취업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시 교내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은 전체적으로 ‘있다’ 35.7%인데 반해 과반수 이상인 64.3%가 ‘없다’고 나타났다. 또한 교내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이 있는 74명을 대상으로 대학(교) 재학 시 학과 교수의 학생진로 상담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통이다’가 48.6%로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37.8%, ‘불만족한다’가 13.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취업 준비 시 느낀 학교 당국의 취업관련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정보 시스템 미비’ 27.5%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표 3).

3. 취업준비와 취업행동

1) 취업의식과 준비상황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는 전체적으로 ‘3학년 2학기’ 2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 모두 각각 25.6%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어렵다’가 4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 적성과 희망을 파악 못함’ 18.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취업관련 정보의 부족, 취업 후 부적응으로 이직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다.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원은 전체적으로 ‘친구 및 선배’로부터 51.2%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 21.7%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가장 자신 없었던 분야는 전체적으로 ‘영어 실력’이 4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접’ 18.8%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기개발 및 성장 가능성’ 2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적성 및 직무 적합성’ 21.3%, ‘연봉수준’ 14.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시 진로 상담대상은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인 59.4%가 ‘친구 및 선배’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표 4).

표 2. 대학 재학 시 특성

unit(%)

항목	근무기관 (n=74)	대학·종합병원 (n=37)	준종합병원 (n=47)	재활전문병원 (n=29)	기타 (n=29)	전체 (n=207)
대학 입학 시 물리치료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취업 전망이 밝음	17(8.2)	14(6.8)	29(14.0)	9(4.3)		69(33.3)
적성과 흥미에 맞음	21(10.1)	8(3.9)	13(6.3)	11(5.3)		53(25.6)
성적에 맞춤	5(2.4)	2(1.0)	4(1.9)	0(0.0)		11(5.3)
주위 사람들의 권유	28(13.5)	13(6.3)	14(6.8)	8(3.9)		63(30.4)
기타	3(1.4)	0(0.0)	7(3.4)	1(0.5)		11(5.3)
$\chi^2=19.091, p=.086$						
물리치료 전공과목의 공부가 나의 적성에 맞음						
매우 그렇지 않다	0(0.0)	0(0.0)	2(1.0)	0(0.0)		2(1.0)
그렇지 않다	1(0.5)	3(1.4)	5(2.4)	0(0.0)		9(4.3)
보통이다	39(18.8)	14(6.8)	39(18.8)	4(1.9)		96(46.4)
그렇다	31(15.0)	17(8.2)	17(8.2)	17(8.2)		82(39.6)
매우 그렇다	3(1.4)	3(1.4)	4(1.9)	8(3.9)		18(8.7)
$\chi^2=40.416, p=.000^*$						
앞으로 진료와 직업은 물리치료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선택						
매우 그렇지 않다	2(1.0)	0(0.0)	0(0.0)	0(0.0)		2(1.0)
그렇지 않다	9(4.3)	3(1.1)	16(7.7)	0(0.0)		28(13.5)
보통이다	24(11.6)	15(7.2)	28(13.5)	8(3.9)		75(36.2)
그렇다	38(18.4)	14(6.8)	20(9.7)	17(8.2)		89(43.0)
매우 그렇다	1(0.5)	5(2.4)	3(1.4)	4(1.9)		13(6.3)
$\chi^2=30.055, p=.003^*$						
대학의 가장 바람직한 임상실습 기간						
4주~8주	19(9.2)	5(2.4)	16(7.7)	7(3.4)		47(22.7)
9주~12주	12(5.8)	10(4.8)	11(5.3)	8(3.9)		41(19.8)
13주~16주	21(10.1)	5(2.4)	10(4.8)	2(1.0)		38(18.4)
17주~20주	4(1.9)	6(2.9)	11(5.3)	0(0.0)		21(10.1)
21주 이상	18(8.7)	11(5.3)	19(9.2)	12(5.8)		60(29.0)
$\chi^2=22.119, p=.036^*$						
대학 졸업 후 필요한 인턴 십 기간						
4주~8주	29(14.0)	17(8.2)	28(13.5)	5(2.4)		79(38.2)
9주~12주	12(5.8)	8(3.9)	6(2.9)	6(2.9)		32(15.5)
13주~16주	2(1.0)	3(1.4)	4(1.9)	0(0.0)		9(4.3)
17주~20주	1(0.5)	0(0.0)	0(0.0)	0(0.0)		1(0.5)
21주 이상	15(7.2)	2(1.0)	10(4.8)	4(1.9)		31(15.0)
필요 없음	15(7.2)	7(3.4)	19(9.2)	14(6.8)		55(26.6)
$\chi^2=23.394, p=.076$						

* $p < .05$

표 3.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

		unit(%)				
항목	근무기관	대학·종합병원 (n=74)	준종합병원 (n=37)	재활전문병원 (n=47)	기타 (n=29)	전체 (n=207)
학과 교수의 학생진로 상담에 대한 필요성						
전혀 불필요		2(1.0)	0(0.0)	0(0.0)	0(0.0)	2(1.0)
비교적 불필요		6(2.9)	1(0.5)	5(2.4)	0(0.0)	12(5.8)
보통		16(7.7)	4(1.9)	20(9.7)	3(1.4)	43(20.8)
비교적 필요		27(13.0)	21(10.1)	19(9.2)	17(8.2)	84(40.6)
매우 필요		23(11.1)	11(5.3)	23(11.1)	9(4.3)	66(31.9)
$\chi^2=50.543, p=.057$						
대학(교) 재학 시 교내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과 만족도						
있다		24(11.6)	13(6.3)	29(14.0)	8(3.9)	74(35.7)
없다		50(24.2)	24(11.6)	38(18.4)	21(10.1)	133(64.3)
$\chi^2=2.858, p=.414$						
대학(교) 재학 시 학과 교수의 학생진로 상담의 만족도(n=74)						
매우 불만족		0(0.08)	0(0.0)	0(0.0)	0(0.0)	0(0.0)
불만족		5(6.8)	1(1.4)	0(0.0)	4(5.4)	10(13.5)
보통		10(13.5)	3(4.1)	20(27.0)	3(4.1)	36(48.6)
만족		6(8.1)	9(12.2)	7(9.5)	0(0.0)	22(29.7)
매우 만족		3(4.1)	0(0.0)	2(2.7)	1(1.4)	6(8.1)
$\chi^2=29.285, p=.001^*$						
대학의 취업관련 서비스						
도움 안 됨		18(8.7)	12(5.8)	28(13.5)	12(5.8)	70(33.8)
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		17(8.2)	6(2.9)	5(2.4)	3(1.4)	31(15.0)
서비스 전문 인력부족		2(1.0)	2(1.0)	4(1.9)	5(2.4)	13(6.3)
취업정보 시스템 미비		28(13.5)	11(5.3)	11(5.3)	7(3.4)	57(27.5)
4학년 중심 서비스치중		2(1.0)	1(0.5)	5(2.4)	1(0.5)	9(4.3)
학생의 참여 의욕부족		5(2.4)	4(1.9)	8(3.9)	1(0.5)	18(8.7)
기타		2(1.0)	1(2.7)	6(2.9)	0(0.0)	9(4.3)
$\chi^2=32.742, p=.018^*$						

* p<.05

표 4. 취업의식과 준비상황

		unit(%)				
항목	근무기관	대학·종합병원 (n=74)	준종합병원 (n=37)	재활전문병원 (n=47)	기타 (n=29)	전체 (n=207)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						
1학년		2(1.0)	0(0.0)	2(1.0)	0(0.0)	4(1.9)
2학년		6(2.9)	3(1.4)	3(1.4)	0(0.0)	12(5.8)
3학년 1학기		14(6.8)	5(2.4)	9(4.3)	2(1.0)	30(14.5)
3학년 2학기		14(6.8)	9(4.3)	23(11.1)	9(4.3)	55(26.6)
4학년 1학기		20(9.7)	11(5.3)	12(5.8)	10(4.8)	53(25.6)
4학년 2학기		18(8.7)	9(4.3)	18(8.7)	8(3.9)	53(25.6)
$\chi^2=13.363, p=.574$						

표 4. 취업의식과 준비상황

unit(%)

항목	근무기관 (n=74)	대학·종합병원 (n=37)	준종합병원 (n=47)	재활전문병원 (n=47)	기타 (n=29)	전체 (n=207)
취업 준비 시 가장 힘들었던 점						
나와 부모님 기대 불일치	4(1.9)	0(0.0)	3(1.4)	2(1.0)	9(4.3)	
적성과 희망 파악 못함	8(3.9)	5(2.4)	20(9.7)	5(2.4)	38(18.4)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1(1.0)	2(1.0)	7(3.4)	1(0.5)	12(5.8)	
원하는 취업의 어려움	41(19.8)	21(10.1)	25(12.1)	16(7.7)	103(49.8)	
학교 취업 지원의 부족	13(6.3)	5(2.4)	8(3.9)	5(2.4)	31(15.0)	
기타	6(2.9)	4(1.9)	4(1.9)	0(0.0)	14(6.8)	
$\chi^2=20.961, p=.138$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원						
학과 교수/학과 사무실	7(3.4)	3(1.4)	13(6.3)	5(2.4)	28(13.5)	
친구 및 선배	30(14.5)	22(10.6)	34(16.4)	20(9.7)	106(51.2)	
인터넷(취업포털사이트)	21(10.1)	9(4.3)	11(5.3)	4(1.9)	45(21.7)	
가족 및 친지	0(0.0)	0(0.0)	1(0.5)	0(0.0)	1(0.5)	
학교 취업지원센터(부서)	0(0.0)	0(0.0)	1(0.5)	0(0.0)	1(0.5)	
기관 홈페이지	13(6.3)	2(1.0)	4(1.9)	0(0.0)	19(9.2)	
기타	3(1.4)	1(0.5)	3(1.4)	0(0.0)	7(3.4)	
$\chi^2=26.176, p=.096$						
취업 시 가장 자신 없었던 분야						
학교 성적	12(5.8)	2(1.0)	9(4.3)	3(1.4)	26(12.6)	
영어 실력	36(17.4)	21(10.1)	26(12.6)	19(9.2)	102(49.3)	
면접	14(6.8)	10(4.8)	11(5.3)	4(1.9)	39(18.8)	
전공 지식	4(1.9)	3(1.4)	14(6.8)	2(1.0)	23(11.1)	
PC 활용능력	8(3.9)	1(0.5)	7(3.4)	1(0.5)	17(8.2)	
$\chi^2=19.726, p=.072$						
취업 시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						
연봉	11(5.3)	3(1.4)	10(4.8)	5(2.4)	29(14.0)	
적성 및 직무적합성	14(6.8)	8(3.9)	16(7.7)	6(2.9)	44(21.3)	
직장 규모 및 인지도	6(2.9)	3(1.4)	8(3.9)	0(0.0)	17(8.2)	
직장의 안정성	10(4.8)	5(2.4)	6(2.9)	0(0.0)	21(10.1)	
다양한 복지혜택	2(1.0)	0(0.0)	0(0.0)	1(0.5)	3(1.4)	
근로조건(근무시간/휴일)	6(2.9)	5(2.4)	5(2.4)	4(1.9)	20(9.7)	
자기개발 및 성장가능성	24(11.6)	10(4.8)	18(8.7)	9(4.3)	61(29.5)	
통근거리	0(0.0)	2(1.0)	0(0.0)	2(1.0)	4(1.9)	
기타	1(0.5)	1(0.5)	4(1.9)	2(1.0)	8(3.9)	
$\chi^2=26.135, p=.346$						
취업 준비 시 진로 상담대상						
친구 및 선배	37(17.9%)	27(13.0%)	37(17.9%)	22(10.6%)	123(59.4)	
가족 및 친척	6(2.9%)	1(2.7%)	1(0.5%)	2(1.0%)	10(4.8)	
학과 교수	8(3.9%)	5(2.4%)	18(8.7%)	1(0.5%)	32(15.5)	
교내 취업담당자	0(0.0%)	0(0.0%)	0(0.0%)	0(0.0%)	0(0.0)	
자신이 알아서	23(11.1%)	3(1.4%)	9(4.3%)	4(1.9%)	39(18.8)	
기타	0(0.0%)	1(0.5%)	2(1.0%)	0(0.0%)	3(1.4)	
$\chi^2=29.594, p=.003^*$						

* p<.05

2) 전공과 관련된 취업 계획

취업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공공부와 학점관리’가 34.3%로 가장 많았고, ‘국가고사 준비’가 28.0%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및 수료증은 전체적으로 ‘있다’가 62.3%, 37.7%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과 관련하여 참여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인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과 관련하여 참여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인 59.9%가 ‘참여해 본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특강-설명회’가 22.2%,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15.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노동부가 주관한 직장체험프로그램, 타 대학 직업관련 연수교육 등이 있었다. 취업 시 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 1순위는 전체적으로 ‘연봉’ 2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근무환경’ 20.6%, ‘근무시간/휴일 등 근로조건’ 19.8% 순으로 나타났다(표 5).

3) 면접 및 입사

취업을 하기 전 면접을 보기 위해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응답에서 47.8%가 ‘취업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14.0%, ‘면접기술 지도’와 ‘인성’ 지도가 각각 13.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입사 후 직장 상사의 지시사항에 대한 대응방법, 취업기관에 대한 전망과 연봉 등이었다. 취업을 하기 전 면접을 위해 학생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은 전체적으로 ‘인성과 매너’가 32.9%로 가장 많았고, ‘취업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 보유’가 21.7%, ‘전공 지식 함양’ 16.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취업 면접 시 받은 질문 내용은 72.0%가 ‘지원이유’라고 대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12.6%, ‘특기’ 6.3%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질문내용으로는 결혼과 출산계획, 공공 재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 관심 있는 물리치료 분야, 내 성격의 장점과 단점, 장래 희망, 이전 병원의 근무환

경이나 퇴직이유, 자기소개, 직원들 사이의 인간관계, 살아오면서 특별한 경험 등이 있었으며,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졸업 후 현 직장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 이력서를 제출한 횟수는 전체적으로 46.4%가 ‘2~3회’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회’가 29.5%, ‘4~5회’는 18.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한 기관에서 채용에 탈락한 경험은 71.0%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채용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147명을 대상으로 채용에 탈락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39.5%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면접 시 불충분한 응답’ 27.2%, ‘성적’ 9.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관에 채용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인성과 매너’라는 이유가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 23.2%, ‘친인척 등의 지인 추천’ 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표 6).

4. 취업성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평균 연봉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2,900만원’이 6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0만원~3,900만원’ 15.9%, ‘2,000만원 미만’ 12.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는 직장의 ‘임금과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불만족’ 40.6%, ‘보통’ 33.8%, ‘만족’ 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희망하는 평균 연봉’은 전체적으로 ‘3,000만원~3,900만원’ 4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00만원 이상’ 20.3%, ‘2,000만원~2,900만원’ 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표 7).

IV. 고 찰

본 연구는 의료 및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시 학교생활의 특성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관하여 근무기관별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표 5. 전공과 관련된 취업 계획

		unit(%)				
항목	근무기관 (n=74)	대학·종합병원 (n=74)	준종합병원 (n=37)	재활전문병원 (n=47)	기타 (n=29)	전체 (n=207)
취업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						
전공공부와 학점관리	30(14.5)	12(5.8)	16(7.7)	13(6.3)	71(34.3)	
관련 자격증 취득	3(1.4)	3(1.4)	7(3.4)	4(1.9)	17(8.2)	
외국어 능력 배양	5(2.4)	1(0.5)	6(2.9)	0(0.0)	12(5.8)	
학기 중 실습	8(3.9)	3(1.4)	10(4.8)	2(1.0)	23(11.1)	
국가고시 준비	15(7.2)	14(6.8)	20(9.7)	9(4.3)	58(28.0)	
컴퓨터 활용능력 기르기	1(0.5)	0(0.0)	0(0.0)	0(0.0)	1(0.5)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12(2.8)	4(1.9)	8(3.9)	1(0.5)	25(12.1)	
$\chi^2 = 19.930, p = .337$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및 수료증						
있다	56(27.1)	26(12.6)	29(14.0)	18(8.7)	129(62.3)	
없다	18(8.7)	11(5.3)	38(18.4)	11(5.3)	78(37.7)	
$\chi^2 = 16.957, p = .001^*$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과 관련하여 참여한 프로그램						
취업특강-설명회	13(6.3)	6(2.9)	20(9.7)	7(3.4)	46(22.2)	
기관 봉사활동	13(6.3)	9(4.3)	8(3.9)	3(1.4)	33(15.9)	
참여해 본 적 없음	47(22.7)	21(10.1)	37(17.9)	19(9.2)	124(59.9)	
기타	1(0.5)	1(0.5)	2(1.0)	0(0.0)	4(1.9)	
$\chi^2 = 7.928, p = .541$						
취업 시 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						
전공에 대한 전망	36(5.8)	18(2.9)	43(6.9)	20(3.2)	117(18.8)	
학사관리(졸업/휴학/성적)	6(1.0)	2(0.3)	0(0.0)	2(0.3)	10(1.6)	
면접	13(2.1)	2(0.3)	5(0.8)	1(0.2)	21(3.4)	
연봉	55(8.9)	26(4.2)	59(9.5)	21(3.4)	161(25.9)	
대학원 및 해외유학정보	17(2.7)	3(0.5)	9(1.4)	3(0.5)	32(5.2)	
원만한 대인관계 내용	10(1.6)	5(0.8)	7(1.1)	7(1.1)	29(4.7)	
근로조건(근무시간/휴일)	41(6.6)	29(4.7)	35(5.6)	18(2.9)	123(19.8)	
근무환경	44(7.1)	26(4.2)	43(6.9)	15(2.4)	128(20.6)	
$\chi^2 = 27.366, p = .159$						

* p < .05

표 6. 면접 및 입사

		unit(%)				
항목	근무기관 (n=74)	대학·종합병원 (n=74)	준종합병원 (n=37)	재활전문병원 (n=47)	기타 (n=29)	전체 (n=207)
면접을 보기 전 교수가 지도해야 할 준비사항						
취업기관의 정보 습득	39(18.8)	12(5.8)	34(16.4)	14(6.8)	99(47.8)	
면접기술 지도	10(4.8)	6(2.9)	10(4.8)	1(0.5)	27(13.0)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10(4.8)	8(3.9)	8(3.9)	3(1.4)	29(14.0)	
전공지식	2(1.0)	4(1.9)	9(4.3)	3(1.4)	18(8.7)	
인성	8(3.9)	7(3.4)	5(2.4)	7(3.4)	27(13.0)	
어학능력	4(1.9)	0(0.0)	0(0.0)	0(0.0)	4(1.9)	
기타	1(0.5)	0(0.0)	1(0.5)	1(0.5)	3(1.4)	
$\chi^2 = 26.071, p = .098$						

표 6. 면접 및 입사

unit(%)

항목	근무기관 (n=74)	대학·종합병원 (n=37)	준종합병원 (n=47)	재활전문병원 (n=47)	기타 (n=29)	전체 (n=207)
면접을 보기 전 학생 스스로 준비할 사항						
취업기관에 대한 정보 보유	16(7.7)	4(1.9)	20(9.7)	5(2.4)	45(21.7)	
면접기술 준비	8(3.9)	4(1.9)	8(3.9)	0(0.0)	20(9.7)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13(6.3)	4(1.9)	8(3.9)	0(0.0)	20(9.7)	
전공 지식 함양	12(5.8)	5(2.4)	8(3.9)	10(4.8)	35(16.9)	
인성과 매너	17(8.2)	19(9.2)	20(9.7)	12(5.8)	68(32.9)	
어학 능력	8(3.9)	1(0.5)	3(1.4)	0(0.0)	12(5.8)	
기타	0(0.0)	0(0.0)	0(0.0)	0(0.0)	0(0.0)	
$\chi^2=28.979, p=.016^*$						
취업 면접 시 받은 질문내용						
지원동기	51(24.6)	31(15.0)	50(24.0)	17(8.2)	149(72.0)	
특기	6(2.9)	2(1.0)	5(2.4)	0(0.0)	13(6.3)	
가족사항	0(0.0)	3(1.4)	3(1.4)	1(0.5)	7(3.4)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12(5.8)	1(0.5)	4(1.9)	9(4.3)	26(12.6)	
바람직한 물리치료사란	5(2.4)	0(0.0)	5(2.4)	2(1.0)	12(5.8)	
$\chi^2=25.681, p=.012^*$						
졸업 후 현 직장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 이력서를 제출한 횟수						
1회	15(7.2)	12(5.8)	24(11.6)	10(4.8)	61(29.5)	
2회~3회	36(17.4)	19(9.2)	26(12.6)	15(7.2)	96(46.4)	
4회~5회	19(8.2)	5(2.4)	12(5.8)	3(1.4)	39(18.8)	
6회 이상	4(1.9)	1(0.5)	5(2.4)	1(0.5)	11(5.3)	
$\chi^2=9.468, p=.395$						
지원한 기관에서 채용 탈락한 경험						
있다	59(28.5)	28(13.5)	43(20.8)	17(8.2)	147(71.0)	
없다	15(7.2)	9(4.3)	24(11.6)	12(5.8)	60(29.0)	
$\chi^2=6.806, p=.078$						
지원한 기관에서 탈락한 이유(n=147)						
면접 시 불충분한 응답	10(6.8)	9(6.1)	15(10.2)	6(4.1)	40(27.2)	
본인의 신체 외모	0(0.0)	0(0.0)	1(0.7)	0(0.0)	1(0.7)	
말투 및 언어사용 문제	7(4.8)	3(2.0)	1(0.7)	0(0.0)	11(7.5)	
이유를 잘 알지 못함	21(14.3)	9(6.1)	20(13.6)	8(5.4)	58(39.5)	
성적	10(6.8)	2(1.4)	1(0.7)	1(0.7)	14(9.5)	
성 차별	9(6.1)	1(0.7)	3(2.0)	0(0.0)	13(8.8)	
연령 제한	2(1.4)	4(2.7)	2(1.4)	5(1.4)	10(6.8)	
학력 차별	0(0.0)	0(0.0)	0(0.0)	0(0.0)	0(0.0)	
$\chi^2=28.066, p=.061$						
현재 기관에 채용된 이유						
인성과 매너	16(7.7)	14(6.8)	19(9.2)	8(3.9)	57(27.5)	
친인척 등의 지인 추천	9(4.3)	9(4.3)	17(8.2)	3(1.4)	38(18.4)	
교수 추천	6(2.9)	2(1.0)	11(5.3)	5(2.4)	27(11.6)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	21(10.1)	6(2.9)	13(6.3)	8(3.9)	48(23.2)	
성적	8(3.9)	0(0.0)	0(0.0)	2(1.0)	10(4.8)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14(6.8)	6(2.9)	7(3.4)	3(1.4)	30(14.5)	
$\chi^2=26.824, p=.030^*$						

* p<.05

표 7. 취업성과

항목						unit(%)
	근무기관 (n=74)	대학·종합병원 (n=74)	준종합병원 (n=37)	재활전문병원 (n=47)	기타 (n=29)	전체 (n=207)
현재 평균 연봉						
2,000만원 미만	10(4.8)	4(1.9)	7(3.4)	4(1.9)	25(12.1)	
2,000만원~2,900만원	39(18.8)	28(13.5)	53(25.6)	16(7.7)	136(65.7)	
3,000만원~3,900만원	17(8.2)	5(2.4)	5(2.4)	6(2.9)	33(15.9)	
4,000만원~4,900만원	4(1.9)	0(0.0)	1(0.5)	1(0.5)	6(2.9)	
5,000만원 이상	4(1.9)	0(0.0)	1(0.5)	2(1.0)	7(3.4)	
$\chi^2 = 18.120, p = .112$						
현재 임금과 수입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9(4.3)	4(1.9)	9(4.3)	1(0.5)	23(11.1)	
불만족	30(14.5)	10(4.8)	29(14.0)	15(7.2)	84(40.6)	
보통	26(12.6)	12(5.8)	23(11.1)	9(4.3)	70(33.8)	
만족	8(3.9)	11(5.3)	6(2.9)	4(1.9)	29(14.0)	
매우 만족	1(0.5)	0(0.0)	0(0.0)	0(0.0)	1(0.5)	
$\chi^2 = 14.835, p = .251$						
희망하는 평균 연봉						
2,000만원 미만	0(0.0)	0(0.0)	0(0.0)	0(0.0)	0(0.0)	
2,000만원~2,900만원	19(9.2)	12(5.8)	5(2.4)	2(1.0)	39(18.4)	
3,000만원~3,900만원	23(11.1)	20(9.7)	36(17.4)	16(7.7)	95(45.9)	
4,000만원~4,900만원	11(5.3)	3(1.4)	12(5.8)	6(2.9)	32(15.5)	
5,000만원 이상	21(10.1)	2(1.0)	14(6.8)	5(2.4)	42(20.3)	
$\chi^2 = 26.729, p = .002$						

* $p < .05$

대학 재학 시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1위가 취업 전망이 밝아서 선택하였다고 나타났다.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직업의 전문화로 인하여 미래에 유망한 전문 직종을 선택하여 입학할 하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고(오덕자 등, 2005), 방경숙과 조진경(2008)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 재학생 2, 3, 4학년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학동기가 전문직을 원하기 때문(26%)에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오늘날 직업은 과거와는 달리 생계수단 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의 장인 동시에 그 사람의 사회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추수경과 전은미, 1998)이기 때문에 보다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직업도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49.3%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임상실습기간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지

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21주 이상의 실습기간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안성자와 안소윤(2012)의 연구에서 현재 임상실습 시간은 3년제 400시간 미만, 4년제는 400~600시간 미만으로 나타나서 임상에서 임상실습시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조금씩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전 임상실습을 충분하여 준비된 전문가로서 현장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습기간이 늘어 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대학졸업 후 인턴 십은 기타(의원, 복지관, 보건소 등)는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다른 기관들은 모두 4주~8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짧게라도 인턴 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여성개발원(2002)에 의하면 취업준비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

기가 대학교 3, 4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숙과 송선옥(2011)의 연구에 의하면 경상계열 대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의 최적시기가 46%로 3학년이라고 응답하여 선행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김태홍과 김종숙(2000)에 의하면 2000년 서울 경기지역 소재 인문사회계열 졸업생 924명을 취업준비 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 취업준비를 일찍 시작한 집단은 취업률이 높고, 늦게 시작한 집단은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의 필요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경과 김동일의 연구(2004)에 의하면 18개 대학 3, 4학년 대학생과 기업체 신입사원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준비행동은 3학년 초부터 시작하여 4학년 초, 취업직전까지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여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도 대학생들은 취업준비는 전체적으로 3학년 2학기가 최적의 시기라고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전공 관련 자격증 안내와 다양한 특강과 상담이 지원되어 취업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수단은 기관별 모두 친구 및 선배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하였고 학교취업지원센터 이용은 별로 없었다. Taylor(198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대학의 취업담당센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친구/친지는 별로 이용하지 않는 수단이라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여성개발원(2002)에 의하면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습득(57.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과 선배나 동료(18.2%)였다. 유연화와 임경애(2012)의 연구에서도 취업에 대한 정보 수집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선배 등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제경과 김동일의 연구(2004)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정보로 친구로부터 정보제공을 받는 것이 가장 높아서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고 기관별로도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는 취업을 준비 할 때 상담 대상은 친구 및 선배(59.4%)로 나타나 대부분 취업은 학과 교수나 교내 취업 담당자를 통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취업지원센터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상담지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과교수를 통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다.

유연화와 임경애(2011)는 취업준비를 위한 개인적인 자격증과 수료증 취득은 63.5%가 재학 중 개인적으로 1~3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경과 김동일(200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서 외국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위한 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 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가(강순희와 박성재, 2002; 김우영, 2002; 박가열과 천영민, 2009; 전현중 등, 2009)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테이핑 수료증이 있었고, 졸업 후에는 주로 전공과 관련된 PNF, Bobath, Vojta, OMPT 수료증을 62.3%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물리치료사가 우대되고 있어서 영어능력과 PC관련 자격증과 더불어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을 위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해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 프로그램 참여도는 59.9%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병희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재학 중의 일 경험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 있다고 하였고, 채창균(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경험이 있는 학생이 취업률은 30~31% 수준인 반면, 일자리 경험이 없는 학생의 취업률은 18~22%에 머무르고 있어 무경험자에 비해 약 10% 높다는 분석으로 나타나서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재학 중의 전공 관련 봉사 경험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시 가장 자신 없는 분야가 영어 실력 부족으로 49.3%가 나타났고, 유연화와 임경애

(2012)의 연구에서 K대학교 유아교육과 1~3학년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한 성격은 적극적 태도나 자신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외국어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평점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고(조장식, 2011), 대졸자들이 많이 응시하는 것은 TOEIC이고 평균 점수가 699.3으로 나타남으로(박성재, 2006)인해 학교에서는 강좌나 관련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영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취업률과 취업의 질적 효과도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도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전까지 이력서를 제출한 회수는 평균적으로 2~3회 정도 이었고, 면접을 보기전 학생 스스로 준비할 사항은 인성과 매너가 32.9%로 가장 높았다. 취업 면접 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내용은 지원한 동기를 설명하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 본인이 탈락한 경험은 71% 이었으며, 탈락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였으나 면접 시 불충분한 대답으로 인해 탈락했을 거라고 생각 하였다. 그리고 또한 취업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준 종합병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는 연봉으로 나타났고, 취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모두 자기개발 및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채용된 이유는 인성과 매너부분이 인정받아서 취업을 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평균연봉(만원단위)은 2,000~2,900으로 불만족으로 나타났고, 희망 연봉은 3,000~3,900으로 나타났다.

Dalton(1981)의 연구에 의하면 기본적인 자기이해 즉 학교 카운슬러를 이용하거나 자신에 대한 분석하기, 구체적 직업목표 세우기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취업서비스센터에 등록하거나 고용주에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많았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기위해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컴퓨터 및 전공과 관련한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조기에 적극적인 태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과 취업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학생

들이 취업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학생들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영어능력과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의 취업관련 시설이나 기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가 대학 재학 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과 취업성과를 파악하여 졸업 전 취업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경남지역 의료·보건기관에 취업 중인 물리치료(학)과 졸업생 207명을 대상으로 유연화와 임경애(2012, 2011)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 전망이 밝아서가 가장 많았고, 취업준비 시기는 3학년 2학기가 가장 높았다.
2. 취업준비 행동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은 선배 및 친구로부터였고, 자격증과 수수료증은 62.3% 보유하였고, 취업준비를 위해 취업과 관련 프로그램 참여도는 59.9%였다. 취업 시 가장 자신 없는 분야는 영어능력하였고, 취업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연봉이었으며, 취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기개발 및 성장 가능성 이었다.
3. 취업 면접 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지원한 동기이었고, 현 기관에 채용된 이유는 인성과 매너가 좋아서였다.
4. 취업성과에서, 현재 평균연봉은 불만족이었다.

결론으로 물리치료과 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수단은 선배 및 친구로 부터로 크게 다양하지 못하였고 임상현장은 전공 실력은 물론, 인성과 매너가 충분히 갖춰진 물리치료사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교양교육과 전략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상자는 부산 및 경남 지역의 물리치료(학)과 졸업생만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취업 후 직업만족도와 이직성향, 직업수행능력과 문제점 모색에 대해서도 추후 확대 조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순희, 박성재.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의 일치. 제 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중앙고용정보원. 2002.
- 김경미, 정영란, 한화진. 치위생과 학생의 취업가치관과 취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2):1-2.
- 김미경. 대학생의 취업가능성 인지가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 김우영.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 중앙고용정보원. 2002.
- 김재원.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형태에 관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김태홍, 김종숙. 여성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 박가열, 천영민.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2009;3(1):29-59.
- 박성재, 반정호.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006;29(3):29-50.
- 방경숙, 전명희, 김현숙, 손행미, 강정희, 유수정, 권미경, 김지수. 간호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9;15(1):22-31.
- 방경숙, 조진경. 일개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8;14(1):88-97.
- 안성자, 안소윤. 물리치료 임상실습 교육의 현황과 인식.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2012;19(2):43-53.
-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 박연환.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5;11(1):64-72.
- 유연화, 임경애.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011;15(1):461-484.
- 유연화, 임경애. K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취업준비 및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유아교육학논집. 2012;16(3):271-289.
-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005;35(6):1091-1100.
- 이병희, 안주엽, 전병유, 장수명, 홍서연.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제경.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과 대학전공분야별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 이제경, 김동일.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2004;12(2):107-123.
- 이혜숙, 송선옥. 경상계열 대학생의 취업의식 실태조사 :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저널. 2011;3(3):145-178.
- 전현중, 류장수, 조장식, 박성익, 김종한. 누리사업단 대학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2009;32:31-56.
- 조상희. 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4.
- 조장식. 학생정보를 이용한 대졸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1;22(5):849-856.
- 채창균. 대학 재학생의 취업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업과 인력개발. 2002;5(6):68-74.
- 채창균, 김안국, 오호영.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

- 적자원 개발(I):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추수경, 전은미. 간호학사 특별과정생의 직업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98;5(2):250-266.
- 통계청(<http://www.kostat.go.kr>).
- 한국여성개발원. 여대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대학의 지원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2.
- 황선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녀공학 대학의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비교[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 Taylor, MS. Strategies and sources in the student job search. *Journal of College Placement* Fall, 1984; 40-45.
- Dalton, CW. The young person's job search: Insights from a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1;28(4):321-333.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14년 5월 01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14년 6월 20일
 논문게제승인일(Date Accepted) : 2014년 9월 20일